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올해 보스톤코리아 기사 중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들 관련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우원, 박영선 전 장관, FBI피지 성매매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손민수, 백혜선 교수, MIT

정기 휴간 안내
12월 29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올해부터는 15만불 이하 소득 가정도 커넥터케어 혜택"

중저소득층 위한 커넥터케어 건강보험 23일 1차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헬스케어커넥터 (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받기 위한 1차 공개등록 마감일이 23일로 다가왔다. 오바마 케어의 일환인 매사추세츠 커넥터케어 공개 등록기간에는 누구든지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면 MAhealthconnector.org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특히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3일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최종 마감은 내년 1월 23일이다. 특히 올해 공개등록부터는 2년 커넥터케어 확장 시범프로그램으로 >>9면으로 계속

전두환 손자 폭로 올해 최고 조회수, 쓰지 않은 뒷이야기

올해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들로 돌아보는 2023년 박영선 전장관 인터뷰, 성매매 사건, 젤사기 사건 등 윤석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보스톤 방문도 주요 관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3년 보스톤코리아 보도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는 올해 3월 갑작스런 폭로로 한국을 발각 뒤집어 놓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 관련 보도였다. 3월 14일 이른 새벽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입니다 | 마약 / 성범죄 / 사기범죄 명단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누가 전두환 손자를 사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가 보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채널 링크를 하나씩 열어봤다. 충격적이었고 마치 소설 같았다. 그럼에도 전두환 손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영상을 통해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전두환, 그리고 뉴욕 경영대학원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마약 등 비리를 폭로했다. 아침 >>8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 밤 성황리에 종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12월 16일 토요일 밤 7시부터 벨링턴 소재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 약 200여명의 한인 및 미국인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인회 장영수 회장은 송년의 밤 환영사를 통해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2세와 3세까지 포용하게 이들에게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나 제언할 사항이 있어 저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제 셀폰이 한인회 대표전화 (978-994-0306)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재휘 총영사는 “송년의 밤을 준비한 한인회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 말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의 올해 추진해온 사업을 설명하고 2024년 계획을 10여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24년에는 다양해진 동포사회가 필요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는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미래 먹거리 관련 경제 외교, 한인 3, 4세대 정체성을 유지 교육, 한국국민을 보호 및 동포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영사는 3월말부터 7월까지 보스톤미술관(MFA)에서 개최하는 ‘한류’ 전시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한나라의 전통문화를 넘어서 현대문화, 케이팝, 한국의 복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면서 “전시회, 학술행사, 케이팝 공연 한류

관련 행사를 많이 한다. 동포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참여해서 실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인공으로서 같이 참여해주시길 박물관도 원하고 있다.” 고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장영수 회장은 이어 한인회 임원진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장인숙 한인회 이사장, 김동원 부이사장, 최은경 이사, 양미아 시민협회장, 오은희 평통간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에 우승을 차지한 유매스 팀이 뛰어난 커버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전문 DJ가 한국어 및 영어로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한 한인들은 호텔에서 준비한 뷔페식 식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비행기표는 노인회 김순호 이사장이 당첨됐다. 이날 상당수의 상품은 노인회 테이블로 돌아가 노인회의 저력을 보였다. 대한항공 신상옥 보스톤 지점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당첨자에게 항공권을 선물했다.

장영수 회장은 행사 후 통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많은 한인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 있었는데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칭찬도 해주셔서 더욱 힘이 났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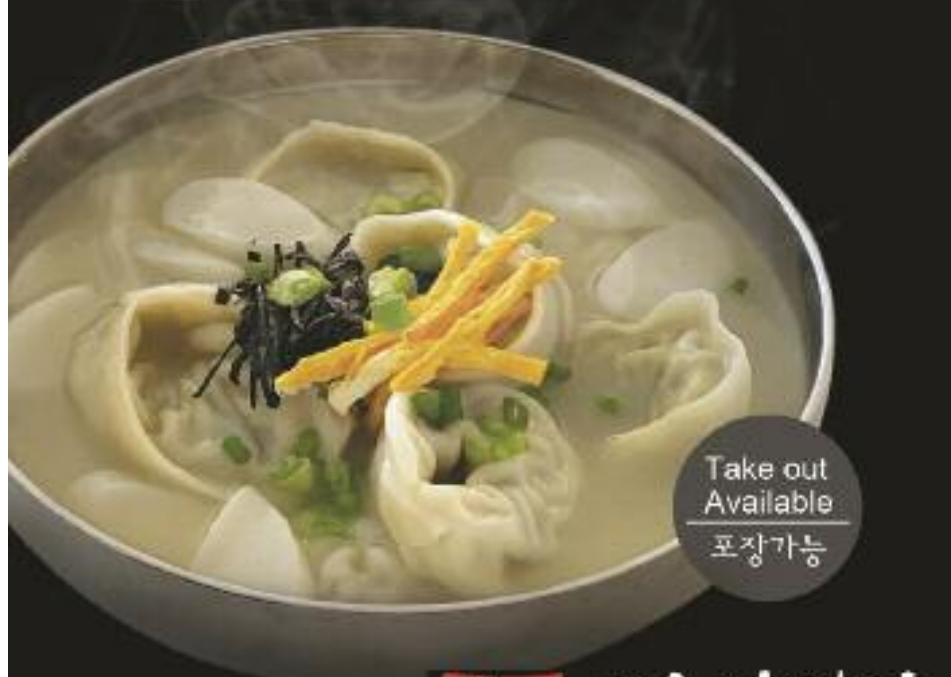
editor@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all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평통, "글로벌 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 Sang Park 씨 최우수상

100여명 참가중 총 26명 선정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협의회 (회장 한문수)는 개최한 글로벌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 수상자를 20일 오후 발표했다.

100여명이 한인들이 참여해 관심을 드러낸 이번 공모전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세계 평화의 시점에

서 바라본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시점으로 양극화 되어가는 갈등 속에 세계 평화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이 세계적 중추국가로 도약을 칠행시로 표현했다.

이번 칠행시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Sang Park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Jiah Lee, Daniel Kok, 평화상에는 이지현, 김효원, 한문수씨가 각각

수상했다.

자유상에는 김동원, 김명자, 김윤혜, 국문호, 마선미, 민신자, 박서준, 박시연, 박영신, 박호상, 오애련, 장우석, 알렉스 장, Hyunah Chang, William Chang, Boreum Chun, Eui Chul Chung, Ethan Hong, Saewon Hwang, Sangkyun Lee씨가 수상했다. 총 수상자는 26명이다.

이번 칠행시 심사위원들은 "이번

에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뉴잉글랜드 한인들의 창의력에 다시 감명을 받았다. 평화통일의 의미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평화로 나아가 갈수있는 도약,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품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속적인 분단의 아픔이 몇 세대를 거쳐 평화통일이 꼭 이루어내야 하는 민족

의 염원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심사후기를 전했다

홍원섭 칠행시 공모전 준비위원장은 "모든 공모작을 지역사회 한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수상공모작 6작품을 공유한다" 고 밝히고 올해 칠행시 공모전에 참여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p>Sang Park 최우수상 글로벌한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로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별써 시작되었습니다 중심은 대한민국입니다 추억의 향기, 희망의 미래를 안고 국민 모두가 자랑입니다 가슴 속 소망과 꿈, 빛나는 별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피어납니다.</p> <p>Jiah Lee 우수상 글로벌 중추국가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로또 당첨보다 더 설레입니다. 별써 시작되었습니다. 중추 국가로의 발돋움!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는 자유.평화. 번영!</p>	<p>가속을 붙여 달리겠습니다. 보스톤 협의회 화이팅!</p> <p>Daniel Kok (국강민) 우수상 글로벌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로고는 무궁화와 비둘기, 태극을 상징한대 요. 별써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중요한 핵심 역량 일꾼들이 함께 출범했어 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세계 곳곳의 국가에서 공공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p> <p>Ji-Hyun Lee (이지현) 평화상 글로 써보겠습니다. 저에게는...</p>	<p>로망(바램)이 하나 있습니다. 별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되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추월하여 앞장 서겠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가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 회 화이팅!</p> <p>Hyowon Kim 평화상 글짓기와 사생대회에 즐거웠던 어린 시절, 로드무비 한편에도 행복했던 학생 시절, 별써 중년이 되고, 대한민국도 중견국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소망과 바램을 모아</p>	<p>가야할 길은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 글로벌 중추국가</p> <p>Moonsu Han 평화상 글로벌하게 우뚝선 K-Pop, K-Food, K- Beauty.. K-대한민국 로마가 전세계를 지배하여 세계의 역사를 써 나갔듯 별써 경제, 문화, 테크놀로지 등에서 전세 계의 중심에 우뚝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추진력을 극대화 시킬 방법은 국민과 교포 등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가능한 빨리 평화통일과 더불어 글로벌 중 추국가 이루어 우리의 손으로 세계사를 써 나 가자!</p>
-------------------------------------------------------------------------------------------------------------------------------------------------------------------------------------------------------------------------------------------------------------------------------------------------------------------------------------	------------------------------------------------------------------------------------------------------------------------------------------------------------------------------------------------------------------------------------------------------------------------------------------------------------------------------------------	-------------------------------------------------------------------------------------------------------------------------------------------------------------------------------------------------------------------------------------------------------------------------------------------------------------------------------------------------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금탑산업훈장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북쪽 빌리카(Billerica, MA)에 미주 본사를 둔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 황해령 회장(67)이 14일(한국 시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지원기관을 발굴·격려하고 기업, 유공자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자 열리는 행사다. 루트로닉 황해령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산업훈장 중에서도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루트로닉은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더마비, 헬리우드 스펙트라, 클라리티II 등 10종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현지 법인을 포함해 55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집중해

온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발표 논문과 지적 재산권은 각각 423건, 741건에 달한다.

캐네디컷 출신의 황 대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1997년 루트로닉을 창업했다. 과산직전 신용보증기금으로 희생했다. 빌리카에 있는 미주 본사에서 임상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주로 담당한다.

전 세계 약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2%가 수출을 통해 발생했다. 전체 루트로닉 매출의 40% 이상은 미국에서 이뤄진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매출

은 전체 70% 이상이다. 국내 피부과 80%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는 치료와 미용 목적으로 활용된다.

홍진섭 전 평통회장의 매형이기도 한 황해령 회장은 "1997년 한국의 기술로 레이저 의료기기를 만들어 산업의 본류인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다"며 "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업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옥타 경제인협회 허훈 신임회장 만장일치로 선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옥타 경제인협회(회장 장진섭)는 12월 15일 벌링톤 소재 뱀부 레스토랑에서 2023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허훈 현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옥타경제인협회 회원들 약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서 단독 입후보 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허훈 신임회장은 "초대 안병학 회장이 옥타의 존재를 알리는 데 노력을 했으며 장진섭 회장은 6년간 경제인협회를 맡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왔다."고 감사를 전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끌어 가겠다"면서 건배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장진섭 회장은 옥타경제인협회 역할을 설명하고 지난 6년간 진행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소개했다. 장진섭 회장은 앞으로 이사장으로 남아 옥타경제인협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문수 평통회장, 김병국 보스톤한미예술협회장, 보스톤 영사관 김원중 영사 등이 참가했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의 평안감사향연도, 삼성문화재단 손에 복원

삼성문화재단 2025년 3월까지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 인계 피바디에섹스박물관 한국실 개관 주요 작품으로 전시 예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피바디에섹스박물관이 소장했던 평안감사향연도가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복원 및 보존처리 되고 있다. 평안감사향연도는 지난 11월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2025년 3월까지 완료한다.

이 병풍 그림은 2025년 재개관된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M)의 한국실 개관에 주요 작품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평안감사향연도는 평안도에서 열린 도과(道科)의 급제자들을 위해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그린 8폭 병풍이다. 평양의 대동강, 선화당, 연광정, 부벽루 등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연회장면과 행렬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8폭의 기록화다.

화견(그림을 그리는 비단)에 아교와 안료로 채색한 견본채색이며 각 폭 크기는 128.1x58.0cm이다. 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면 구성, 필치, 채색기법이 뛰어나 전문 화가가 19세기 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리움미술관은 "평안감사향연도는 작품 전체적으로 묘사가 정교하고 안료의 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화면 곳곳에 금박(金箔) 안료가 사용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19세기 조선의 기록화로 정밀한 고증의 수준과 안정감 있는 필력을 보여주는 명품"이라고 설명했다.

PEM의 평안감사향연도가 보존처리된 것은 지난해 9월 삼성문화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단과 보존처리가 절실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처리 지원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작업은 국내 사립 미술관이 보유한 보존처리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복원, 보존하는 첫번째 사례다.

PEM의 병풍그림은 국외소재문화재단이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유산 소장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평안감사향연도는 흥해(별레먹음) 등으로 상하좌우가 상당 부분 훼손

된 상태이며 특히 부벽루 연회장면은 1/3 정도 그림이 없어진 상태이다. 노화로 인해 화견의 유연성이 떨어져 그림 전면에 걸쳐서 꺾이고 갈라짐이 나타난다.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는 그림의 뒤에 덧대어져 있는 오래되고 산화된 배접지를 제거하고 별레먹음이나 다른 손상요인으로 없어진 부분을 그림의 재질과 동일한 종이와 화견을 제작하여 앞뒤로 매울 계획이다.

린다 로스코 하티건 (Lynda Roscoe Hartigan) 피바디에섹스박물관장은 "이 프로젝트는 2025년으로 계획된 한국실 개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문화재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에서 재탄생한 아름다운 작품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류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중근 의사 유물의 보존처리 지원에 이어 작품의 상태가 온전치 않아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해외의 한국문화재를 리움미술관이 축적한



보존처리 기술로 되살려 우리문화 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 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지속 다.

보스톤 **코리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3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가슴이 따뜻해 지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나눔으로 우리는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 220여명 참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찬 2세들의 동요 경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성탄절을 기념해 개최한 제22회 '꿈을 그린 노래대회'에 220여명이 참가해 동요, 케이팝 노래를 뽑았다.

22회 대회 전체대상은 '연어야 연어야' 를 불러 최고점수를 받은 정지안 학생이 차지해 학교장상을 받았다. 독창부문 대상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를 부른 유다민 학생, 중창부문 대상은 '함께 걸어 좋은 길' 을 부른 흥세린 김민서 학생팀, 합창부문 대상은 '달팽이의 하루' 를 부른 신라1 & 2반이 수상했다. 또한 백두반 선배상은 김수지 위원이 유다민 학생에게, 김경애 심사위원은 이예은-이주안-박가를 중창팀에게 인기상을, 독창부문 조은 학생에게 '최고발표상' 을 각각 수여했다. 학교측은 참가자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윤지혜 사회자의 개회선언과 심사위원 소개 및 양수연 리더의 심사요강 발표 후 독창 부문부터 경연이 시작해 중창부분, 합창부분으로 진행됐다. 반주는 임주광 교사가 맡았다.

이번 대회 심사는 외부위원으로 50년 동안 보스톤 한인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한 부부 한승희·김경애 위원, NEC저스틴박 위원이 내부위원으로 현민경 학부모회 임원, 교사회 대표 김영순 위원, 졸업생

대표로 김수지 위원 등 총 6명이 심사를 맡았고 음악교육부(양수연 임주광 이해정 윤지혜)와 보조교사회(리더 박현아)가 무대 및 시상식 진행을 맡았다.

대회에 앞서 남일 교장과 양원미 학부모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음악을 통해 한글과 문화 및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도해 주신 음악교육부 선생님들과 바쁜 수업 준비 중에도 합창부문 참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담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아름다운 발표를 통해 오늘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멋진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기 바란다." 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세들의 울긋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종과정은 '우리나라 꽃', 기초부문은 '애국가' 를, 초급 이상은 '어머님 은혜' 를 지정곡으로 부르도록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엄마와 함께 가족 중창을 해준 정준우, 유진 학생 그리고 엄마로 구성된 가족팀이 문어 복장으로 참가하여 멋진 발표를 해 큰 박수를 받았고 다른 팀들도 가족이 함께 노래를 하고 부모가 직접 반주도 맡는 등 훈훈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이번 경연의 마지막 순서로 12

개 학급이 참가한 합창부문의 막이 오르자 학부모들은 저마다 자녀의 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웃음과 환호의 박수를 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상자 발표 전 특별 공연에서 지난 대회 전체대상을 수상했던 최재윤 학생이 그룹 Itzy의 LOCO 댄스를 유명 아이돌 못지 않은 실력으로 선보여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어 이호준 학생은 '홀로 아리랑' 을 열창했는데 이호준 학생이 1절을 부른 후 양수연 리더와 김영순 심사위원이 2절을 삼중창으로 이어 불렀다. 마지막 3절은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합창해 관림하는 학부모는 물론 사회를 보던 윤지혜 교사까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지역 최대 규모로 개교 48주년의 역사를 가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다음 2주간 방학을 가진 후 2024년 1월 6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1월 27일에는 2024년도 설날 민속경기 및 문화행사와 함께 중급 & 고급과정을 대상으로 '제3회 나는 번역시인' 대회가 이어진다.

2024학년도 봄학기 등록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에서 등록서를 받아 학교 교무실 또는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봄학기에는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일부 과정에 약간 명만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 문의 및 2세 교육을 위해 한글부문



수상자 전체 사진



전체대상 정지안-남일 교장



정준우 정유진 엄마-문어의 꿈

은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등 문화 교육 부문 및 이중언어과정 교사로 재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전화 (508) 523-5389로 문의하면 된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보스톤 한인 성매매조직서 성매수한 고객 28명 형사고발돼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소재 아파트 성매매 충분한 증거 입증될 때까지 명단 발표는 보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방 국토부 성매매 수사반은 지난달 기소된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한인 성매매 조직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성매수자 중 28명의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가 보스톤 연방지검의 발표를 인용해 18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28명의 성매수자들을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에 소환될 것이며 이들은 이번 기소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심리를 받게 된다.

지난달 국토부의 수사에 따르면 성매수 고객들은 사회 고위 인사들로 선출직 공무원, 정부 극비문서 접근가능(방산업체, 바이오 등) 회사

고위직, 군인, 변호사 등이었다.

미 연방보스톤 지검 조슈아 레빈 지검장대행은 “11월 8일 성매매 조직을 기소할 때 분명히 성매수자들도 분명 책임을 지도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전담수사반은 케임브리지 경찰과 함께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에 18일 28명의 성매수자를 형사고발했다.

레비 지검장대행은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이들의 명단 발표는 보류될 것” 이라고 말하고 “증거가 충분히 증명되고 법원에서 유죄가 밝혀지면 미들섹스지검에서 이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레비 지검장은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에서 성매매를 했던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명의 한인들이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 그리고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 발각돼 미 전역의 관심을 끌었다.

한인 41세의 여성 이모씨, 68세의 남성 이모씨, 30세의 남성 이모씨 등은 보스톤 연방지법에 기소됐으며 기소인부절차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시안들이며 각 주를 돌아다니며 성서비스를 제공했다. 당국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editor@bostonkorea.com



프랭크 밴 미일로 최고 경영자는 OCI 홀딩스의 이현우 회장과 만나 10억달러 폴리실리콘 공급에 합의했다

베드포드 태양열 회사 큐빅피브이 한국 OCI홀딩과 10억달러 계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베드포드 소재 태양열 웨이퍼 제조사 큐빅피브이(CubicPV)가 한국의 실리콘제조업체와 10억달러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큐빅피브이는 미국내에서 초거대 태양열 웨이퍼 제조업체로 성장할 전망이다.

큐빅피브이의 프랭크 밴 미일로 최고 경영자는 이번 계약으로 2025년 건설될 대형 제조공장의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큐빅피브이는 아직 공장 건설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땅값이 비싼 매사추세츠가 아닌 다른 주에 건설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회사측의 의견이다.

큐빅과 계약한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며 이는 태양열 웨이퍼의 핵심 소재다. 이번 큐빅피브이의 태양열 웨이퍼

제조공장 설립은 미국의 태양열 사업에 기념비적 순간으로 이 공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솔라 웨이퍼 제조공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설립 후 약 1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이 회사는 미국의 IRA법에서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로 확장이 가능해졌다.

미일로 대표는 솔라 웨이퍼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지배해왔다고 말했다.

CubicPV는 2021년 베드포드 소재 1366 테크놀로지스와 달라스 소재 헌트 퍼로브스카이트 테크놀로지가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로 현재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North Bridge Venture Partners, Polaris Partners, First Solar, and Hu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전두환 손자 폭로 올해 최고 조회수, 쓰지 않은 뒷이야기

▶▶1면에 이어서

, 전우원의 전화로 메시지를 남겼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 그가 낮에는 주로 잤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날 저녁 첫 보도를 내보냈다. 모든 한국언론사들은 데스크의 확인, 그리고 정치적 고려 등으로 보도를 머뭇거렸다. 2일 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전우원은 그때부터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유튜브 생방으로 내보냈다.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는 모습도 실황 중계했다. 그는 낮에는 자고 주로 밤늦게만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생활 채널이 한국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채널은 텅 비어 있다. 그는 추후 한국으로 건너가 광주 5.18묘지를 방문하고 검찰조사에 응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에 앞선 2월,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케네디 스쿨 학업차 보스턴을 방문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 후 보스턴에 온 박 장관은 인터뷰의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도 기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간결, 적확하고 명쾌했다.

인터뷰 하루 전 보스턴에 도착한 최강한파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수도공급이 끊기는 어려움도 겪었음에도 머리를 묶고 찰스 호텔 로비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박 장관은 요점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정리해 대답했다. 현장을 누볐던 정치인에게서 듣는 얘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

박영선 전 장관의 인터뷰가 1만2천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박 장관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뉴스가 독자를 만나는 지점이 많아야 조회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인 11월 초 보스턴 성매매 관련 소식을 접했다. 성매매 관련 뉴스에는 습관적으로 한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한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불과 몇 년전 한인 관련 성매매 조직이 검거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사회 고위층을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언더커버 수사관의 집요한 수사도 놀라웠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사관은 이 조직 관련 수사를 2020년 7월부터 시작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심지어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던 아파트의 모든 주소는 물론 세세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3년여 동안 자신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3명의 관련 한인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기관은 성매매 수자들에게 대해서도 비공개로 고발하고 재판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레프트는 몇 년 전 플로리다 아시안 마사지를 이용한 비디오가 있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부담감이 검찰과 법원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보도했던 성매매 수자 보도는 불과 하루만에 올해 최고 조회수 10위 내에 오를 정도로 폭발력이 있었다.

4월말 윤석열 대통령은 보스턴을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현직 대통령이 보스턴을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의 로봇산업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가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퍼졌다. 매사추세츠의 바이오생태계 육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일일 것이다. 중국의 열광적인 바이오산업 투자와 경쟁이 아니더라도 미래 먹거리로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윤대통령 내외의 방문은 솟한 화제를 뿌렸다. 방문중 윤대통령은 주청사를 방문했고 그 시간 김건희 여사는 MFA를 방문했다. 그 효과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MFA에서는 3월부터 ‘한류’ 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영향력이 보스턴에 적극 확대될 기대해 본다.

6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뀌버렸다. “대학의 학생 가치 향상 기여도”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에 주요 평가항목이었던 대학의 평판, 그리고 대학의 부유함 등의 항목은 배점을 줄였다. 대학 졸업 후 가치 향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다. WSJ다운 선택이었다.

그결과 MIT가 최고 위치를 차지했다. 하버드는 6위, 애머스트 칼리지 가 8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것은 뉴튼에 위치한 뱍슨 대학이 10위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과거 뱍슨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정해 창업 경진대회를 했던 장면이 오버랩됐다.

보스턴의 삶은 어떤 것일까. 청교도적 삶이 바탕이 된 보스턴의 삶은 건강하지만 어찌보면 건조하다. 겨울 오후 4시면 어두워지고 9시면 도심도 적막이 흐른다. 그런 보스턴의 삶에서 연주회나 공연은 소중한다. 특히 가을에 듣는 클래식은 가슴을 사로잡는다. 긴 겨울의 공백을 두고

가장 많이 본 뉴스 10

1. 전두환 손자 전우원, 동영상으로 "전재용 시민권 따려 한국서 목회"	19359
2. 케네디스쿨이 초청한 박영선 "한국 정치는 아직 마차를 타고 있다"	12454
3. 보스턴서 의사, 교수, 제약회사임원 상대, 한인 성매매 조직 3명 체포	11142
4. 전두환 손자, 유학생 사회에 스며든 마약성범죄 폭로	6236
5. 윤대통령 보스턴 방문 예정, 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에 관심 반영	5209
6. 보스턴 한인 성매매조직서 성매매수한 고객 28명 형사고발	4791
7. WSJ이 선정한 2023 파격 대학 순위, 뱍슨이 컬텍보다 앞서	4744
8. '아메리칸 파이로 바이든, 안젤리나 졸리 놀라게 한 윤대통령 27일 보스턴 도착'	4549
9. "이런 음악회를 볼 수 있는 보스턴 삶이 감사했다"	4433
10. 보스턴 아파트 렌트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됐다	4321

두고 채울 수 있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가 기획한 피아노 연주회는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정자, 변화경, 백혜선, 손민수 등 피아노의 대가들을 비롯 한자리에 모아 3세대가 모인 피아노 연주회였다. 예술협회 소속의 소프라노 이상원씨의 연주 후기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연주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글이었다. 연주회 후기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다. 이상원씨는 “이런 음악회를 볼 수 있는 보스턴에서의 삶이 새삼 감사한 시간이었다.” 고 적었다. 가을 피아노 연주회가 보스턴의 삶에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로 느껴졌다.

올해는 보스턴의 렌트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한해였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회복과 보스턴의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붐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었다. 유학생들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더불어 연준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 더해져 만든 현상이었다. 보스턴 패드(BostonPads)에 따르면 보스턴의 아파트 공실율은 올해들어 0.49%로 떨어졌다. 건강한 공실율은 6%라고 보스턴 미셸 우 시장이 다시 렌트비 상

한제인 렌트컨트롤을 제안하게 된 원인이 됐다.

2023년에는 H마트 브루클라인 점의 개장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CD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폭락한 주식시장의 대안으로 CD 투자를 소개한 글도 주목을 받았다. 그의 최근로 드 아일랜드 황태선씨의 황당한 켈해킹사건 기사는 보도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회수 13위에 올랐다.

최근 보도한 기사들의 조회수가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메일 발송이 재개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점점을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독자와 만났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마지막 호는 챗GPT에 관한 칼럼이었다. 올해 세계 가장 큰 화제는 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의 이야기일 것이다. 내년에도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 것이다. 1990년 말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꿨고 2008년의 아이폰이 다시 한번 바꿨다. 이처럼 인공지능도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는 말로 2024년을 맞이한다. 안녕 2023년.

editor@bostonkorea.com

J.K. HEATING & PLUMB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임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톤 인근 강풍, 폭우로 항공기 운항중단, 80여만가구 단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에 들이닥친 강풍과 폭우로 로건공항의 비행기 운항이 12월 18일 전면 중단됐다. 12시 45분에 재개됐다.

연방항공당국(FAA)은 로건 공항이 운항 중단을 11시까지 결정할 후 이후 다시 연장했다. 12시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로건 공항에서는 141편이 비행편이 취소됐다.

매사추세츠 및 로드 아일랜드에는 강한 폭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강풍은 시속 50마일에 달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지역에 따라 집중

호우도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서 로드아일랜드 해안 지역에 홍수 경보를 내렸다. 특히 기상청은 “바닷물의 밀물이 12시부터 1시까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로드아일랜드 전 해안지역과 매사추세츠 해안지역의 홍수사태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경찰은 기상 조건의 악화로 운전자들이 운전에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 우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시 15분 현재 매사추세츠재

난관리기구(MEMA)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내 28만9천 가정 및 사업체의 전기가 끊겼다. 보스톤글로벌은 뉴잉글랜드 전체 약 80여만 가구가 단전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2대 유틸리티 회사인 내셔널그리드와 에버소스는 현재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전선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내리는 폭우와 거센 바람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2만 2천가구 아직도 전기 복구 안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약 2만 2천여 가구가 18일 겨울 폭우 및 폭풍으로 단전된 이후 3일째인 20일 오전까지 전력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7시 현재 에버소스는 약 7천여 가구의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내셔널그리드는 에버소스에 비해 약 두배 많

은 가구의 전력 복구작업에 나섰다.

내셔널그리드는 브리스톨, 노퍽 및 미들섹스 카운티의 모든 전원은 목요일인 21일까지 복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전으로 인해 전원 공급이 안되는 가정들 중 벽난로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난방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정들은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맞

고 있다. 특히 일부 저지대에 지하실에 물이 치는 주택의 경우 물을 빼는 섉프펌프(Sump pump)를 돌리지 못해 지하실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강물이 범람에 홍수피해를 입은 메인에서는 약 2만 9천여 가구가 단전상태에 놓여 있다.

hsb@bostonkorea.com

국무부, 이젠 급행여권 2주만에 발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팬데믹 여파로 3개월 넘게 걸리던 미국 여권 발급이 정상화 되 찾았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반 여권 발급은 6-8주 그리고 추가로 6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급행 서비스(expedited service)는 2-3주가 소요된다.

지난 2021년부터 여권 발급에 18주 이상 걸려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고 여권 발급이 늦어져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

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526만 건,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천만 건이 넘게 늘었다.

국무부가 올해 발급한 여권과 여권 카드는 총 2402만 건(여권 카드 355만 9000건 포함)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1990년에만 해도 국민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는 국민의 절반인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이스애틀, 보스톤코리아 협약)

"올해부터는 15만불 이하 소득 가정도 커넥터케어 혜택"

▶▶1면에 이어서

인해 과거 연방빈곤선 300% 소득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를 연방빈곤선 500%소득까지 확대해 정부 보조 커넥터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빈곤선 500%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 \$72,900,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50,000이상이면 정부 보조 커넥터 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이번 확대에 의해 약 5만여명의 매사추세츠 중간소득층 주민들이 건강보험 정부보조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소득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득층의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연간 4천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일부는 디덕터블도 없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팰론 헬스, 헬스뉴잉글랜드, 매스제너럴브리검헬스플랜, 텡스 헬스플랜, 웰센스 헬스플랜에 더해 블루크로스브루필드, 하버드필그림, 그리고 유니티드헬스케어 플랜 등 대형 건강보험사들도 합류해 높은 퀄리티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Parish of Boston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평일 미사
오전 9시 30분 (English)	화: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Korean)	목: 오후 7시 30분
오후 4시 30분 (Korean)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 617-558-2711

46 Ash St, Newton MA 0248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게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고,
 남은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Compass,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COMPASS

FDA 승인 블루버드바이오 흔치 않은 선택, 주식팔아 현금 확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FDA 승인을 받은 주식들은 보통 치솟기 마련이지만 크리스퍼와 함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시클셀 유전자치료제 승인을 받은 블루버드는 주식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머빌 소재 바이오 블루버드는 8일 승인된 리프지니아(Lyfgenia)라 부르는 약품에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번 승인이 사상 첫 유전자 가위 낫모양 적혈구 병 치료제인 크리스퍼의 캐스제비와 동시에 승인이라는 점이다.

캐스제비는 이미 영국에서 미리 승인되는 등 훨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리프지니아에 비해 백만달러 더 저렴하다. 게다가 리프제니아에 있는 안전에 대한 경고 문구도 없어 더 안전한 약품으로 간주된다.

또한 FDA가 리프지니아를 승인 시 우선검토권 바우처(priority review voucher, PRV)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PRV는 어린이 또는 주로 관심을 가지 않는 분야의 약을 개발하는 업체에게 주는 바우처로 이 바우처를 다른 업체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블루버드 바이오는 이미 이 PRV를 노바티스에 1억3천만달러(\$103 million)팔기로 합의한 상태이나 FDA가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이 돈이 날라가 버리게 됐다.

블루버드의 대표 오벤웨인은 "PRV는 여러 자금 확보 방법의 하나이며 우리는 다른 자금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블루버드의 주가는 리프지니아의 승인 이후 50%나 폭락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시총 2억 7천만달러를 잃게 됐다.

자금확보가 급한 블루버드는 17일

이례적 방법으로 플로리다 알터나 캐피탈(Alterna Capital)과 자금 조달을 합의했다. 블루버드는 현재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 리프제니아, 진테글로, 스카이소나 3개 약품이 승인되기 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알터나는 블루버드에게 1억달러를 공급하며 약품을 병원에 공급하고 돈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거두기로 했다.

한편, 블루버드는 약 1억5천만달러 가치의 주식을 알터나에게 넘기

게 된다.

알터나는 현재 현금이 아주 중요한 상태로 1억6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8천1백만달러 규모의 다른 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3분기에 8천2백60만 달러를 비용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모든 캐시를 소진하게 된다.

이 같은 불안한 현금 흐름과 월요일 현금 확보를 위한 결정에 주주들은 불만을 표시했으며 19일 약 46%가 추가로 하락한 \$1.33 수준을 기록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미 소비자신뢰지수, 5개월 만에 최고...기존주택 매매 반등

콘퍼런스보드 조사서 101.0→110.7로...2021년 초 이후 최대폭 올라

NAR 기존주택 판매집계 전월보다 0.8% 늘어...1년 전보다는 7.3% 감소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경제 연속특례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10.7을 기록, 11월 101.00보다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14.00 이후 최고치이며, 전월 대비 상승 폭은 9.7로 2021년 3월(19.7) 이후 최대이다.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4.0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현재 사업·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지수는 지난달 136.5에서 이번 달 148.5로 올랐고, 향후 6개월간의 소득·사업·노동시장 전망 지수는 지난달 77.4에서 85.6으로 올라갔다.

12개월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5.7%에서 5.6%로 하락, 2020년 10월(5.6%)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향후 6개월 안에 자동차와 주요 가전 제품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늘어났고,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향후 6개월 이내에 주택 구매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8월 이후 최고였다. 일자리가 충분한지 묻는 '노동시장 편차' 지수는 11월 23.0에서 27.5로 올라갔다. 이러한 상승 폭은 지난해 초 이후 최대이며, 실업률이 10월 3.9%에서 11월 3.7% 내려갔다고 밝힌 정부 공식 통계와 유사한 흐름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매과(통화 긴축 선호)적 동결' 입장을 유지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내년 0.7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금융시장 랠리를 촉발한 상태다.

로이터는 주식시장 강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콘퍼런스보드의 데이비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달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에 대해 "현 사업 상황, 구직 가능성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평가와 단기적인 사업·노동시장·소득에 대한 덜 비관적인 전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충동을 비롯해 정치·금리에 대한 우려가 모두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여전히 물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 계절조정 기준 382만 채(연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7.3% 낮은 수치지만, 전월 대비로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마감한 것이다.

지난달 중위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 오른 38만7천600 달러(약 5억원)였다. bscha@yna.co.kr



제품 파일 연주의장

모건스탠리 "미 금리인하 6월까지 없을 것"...3월 기대에 '찬물'

"인플레이션 완화 관련,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필요" 서비스 인플레이션 불안...시장은 조기 인하 기대 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모건스탠리가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업데이트된 미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유로 이같이 예상했다고 금융전문매체 포렉스라이브(Forexlive)가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향후 몇 차례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집스럽게 변화가 없을 수 있으며, 연준은 많은 사람이 예상

하는 것보다 늦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젠트너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면서 향후 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더 오르고, 6개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율이 내년 1분기에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고용 상황이 나 근원 CPI 개선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는 물론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에 강세를 보이는 증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내년 3월 첫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기 위해 각종 경고성 발언을 쏟아낼 정도로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20일 금융 시장은 이르면 내년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71.1%로 봤다.

cool21@yna.co.kr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뉴욕증시 막판 급락 '화들짝'...과매수 의견 속 긍정 전망 여전

급작스런 차익 실현 매물에 최근 수개월 사이 최대 하락 "향후 훨씬 더 불확실" vs "내년 S&P 500 지수, 5,200선"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뉴욕 증시는 20일(현지 시간) 장 후반 급작스러운 매도세에 급락으로 마감했다.

이날 하루 S&P 500 지수는 지난 9월 2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9거래일 연속 오르던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 10월 26일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였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에 비해 1.27% 떨어진 37,082.00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1.47% 내린 4,698.35에, 나스닥지수는 1.50% 밀린 14,777.9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 30분 만에 1%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매도세가 거셌다.

이날 급락은 주요 지수들이 최근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현 때문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여기에 초단기

옵션거래인 제로데이 옵션(zero-day options)이 매도세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옵션은 특정 날짜에 고정된 가격으로 해당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그중 제로데이 옵션은 계약이 끝나는 당일에도 투자할 수 있어 초단기 베팅 또는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쓰이며, 최근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뉴에지 웰스(Newedge Wealth)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캐머런 도슨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장세가 그동안 "확실히 한쪽으로 매우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며 과매수 상태였던 만큼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먼트의 포트폴리오 설루션 CIO인 짐 캐런도 "향후 훨씬 더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컨퍼런스보드가 내놓은 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10.7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또 이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이 경기 침체에 덜 우려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용 시장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가 강세론자 일부는 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톰 리 전략가는 S&P 500이 내년 5,20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블룸버그 추적 조사로는, 전략

가 중에서 올해 S&P 500의 궤적을 예측하는 데 가장 근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융 시장은 이르면 내년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71.1%로 봤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21일 나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22일의 11월 개인소비지출

(PCE)에 쏠리고 있다.

뉴욕에 있는 인프라캡(InfraCap)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 해트 필드는 로이터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고 저항에 부딪혔다"며 공격적인 매도세가 놀라웠지만 그간 상승세를 고려하면 수급도 간다고 말했다.

cool21@yna.co.kr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냉동고에 갇힌 줄...아침 서울 체감온도 -22도까지 떨어져

전국에 올겨울 최강한파...제주 서귀포조차 최저기온 '영하' 충남서해안·호남·제주 눈 계속...이미 수십cm 쌓여

(서울=연합뉴스)이재영 기자=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가 찾아왔다.

21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최저기온을 보면 강원 향로봉은 기온이 영하 25.3도, 체감온도는 영하 37.7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2.3도까지 내려갔다.

도시별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6.9도, 동두천 영하 15.9도, 인천 영하 13.9도, 수원 영하 13.1도, 대전 영하 12.3도, 강릉 영하 10.7도, 전주 영하 9.5도, 대구 영하 8.6도, 광주 영하 8.1도, 부산 영하 7.4도 등이다.

제주 서귀포조차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0도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다.

이번 추위는 23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3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더라도 지금이 연중 가장 추울 때라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겠다.

특히 22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km(15%) 이상인 강풍이 불면서 추위를 배가시키겠다. 이날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22일 새벽까지 제주, 22일 밤까지 경상동해안엔 다른 지역보다 거센 강풍이 불겠다.

충남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강설이 계속되겠다.

오전 8시 현재 충남서해안과 전라서부, 제주 등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들에 시간당 1~5cm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적설량은 제주 한라산 삼각봉 45.8cm, 충남 태안(근흥면) 31.2cm, 서천(춘장대) 27.5cm, 전북 군산(말도) 36.2cm, 순창(북흥면) 23.3cm, 전남 영암(시종면) 22.8cm, 함평 19.9cm, 광주(광산구) 16.9cm 등이다.

눈은 대체로 22일, 제주의 경우 23일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내륙, 충북중부, 충북남부, 전라동부 등은 이날 오전에서 저녁까지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소강상태 이후 다시 눈이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추가 적설량은 제주산지 20~40cm(최대 6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 10~30cm, 전북서부 5~30cm(최대 40cm 이상), 제주동부와 제주중산간 10~20cm(중산간 최대 30cm 이상), 충남서해안·광주·전남서부 5~15cm(최대 20cm 이상), 제주해안 5~10cm, 세종과 충남내륙(남동내륙 제외) 3~8cm, 전북동부 2~7cm 등이 예상된다.

눈이 내리지 않는 백두대간 동쪽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원영동과 경상동부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인천·경기앞바다에 이날까지, 서해중부면바다·충남앞바다·서해



내리는 눈, 치우는 교사들. 대설경보가 발효된 2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인도에서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부앞바다·남해서부동쪽면바다에 22일까지, 서해남부면바다·동해상·제주해상·남해면바다엔 23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5km(10~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동해면바다와 서해남부면바다는 최대 5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원동해안과 경상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며 특히 파고가 높아지면 서 너울이 강해질 수 있겠다.

jylee24@yna.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소송'도 이겼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 5천만원의 배상금과 자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YOUR HOLIDAY FEAST SAVINGS ARE HERE **CHRISTMAS**
 FRIENDS AND FAMILY WILL ENJOY THEIR FAVORITE DISHES FROM H MART!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찬 준비는 H 마트와 함께하세요!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22nd - DEC. 28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ROCKIN' AROUND THE CHRISTMAS PIZZA ROLL TREE
 Have a tree-mendous holiday season with this festive Christmas Pizza Roll Tree!
 H 마트와 함께 만든 피자롤로 크리스마스 만찬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Best Gift!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BOX \$29.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Pomegranate 석류 LB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NEW CROP!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2.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13.9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4.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5.99	Frozen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5.99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U/2-LB \$24.99	YAMASA Frozen Vegetable Ball Tempura 야마사 야채볼 덴푸라 LB \$4.99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5.99	FRI/SAT/SUN/MON ONLY 금, 토, 일, 월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Organic Mixed Grains 10 Different Kinds of Grains 유기농장 유기농 건강혼합 10곡미 \$39.99 12 LB	H MART SMART CARD ONLY CJ Hetbahn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99 7.4 OZ X 12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DONGWON Canned Tuna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LIGHT STANDARD \$7.99 5.29 OZ X 4 CANS/PKG	H MART SMART CARD ONLY OTTOGI Snack Ramen Noodle Soup Cup 스낵면 소컵 \$7.99 2.18 OZ X 6 EA/BOX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YELLOW 15 LB + 3 LB \$14.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3.99	HAIO Korean BBQ Sauce 해오름 바베큐 소스 BEEF (SHORT RIB /BULGOGI)/PORK/CHICKEN/TERIYAKI - 29.63 FL OZ \$3.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5.99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12.99 6.6 LB
CHUNG JUNGONE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99	GOMPYO Korean Pancake/Frying Mix 곰표 튀김/부침 가루 2.2 LB \$2.99	HAIO Yuza/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생강차 2.2 LB \$5.99	HAITAI Butter-ring Soft/Deep Choco Cookie 해태 버터링 소프트/팁초코 SOFT - 8.39 OZ / DEEP CHOCO - 5.46 OZ \$3.99	HAIO Banana/Strawberry/Coffee Flavored Milk Drink 해오름 바나나/딸기/커피 우유 6.4 FL OZ X 6 EA/PKG \$4.99
EDIYA Special Gold/Mocha Blend Coffee Mix 이디야 스페셜 골드/모카 브랜드 커피믹스 0.38-0.4 OZ X 100 STICKS/PKG \$9.99	KWANGDONG Vita 500 광동제약 비타500 100 mL X 10 BTLs/PKG \$4.99	CHEF'S WARE Perfect Seal Food Container 세프웨어 퍼펙트실 밀폐용기 (직사각) 300 mL - \$2.99 520 mL - \$3.79 \$1.99 EA	KüHAUS Electric Thermo Pot 쿠하우스 전기 보온포트 3.5 L EA \$44.99	TOYTRON Little Future Book Pen 토이트론 리틀 퓨처북 펜 PORORO (KOR/ENG)/PORORO CODING/ROBOCAR POLI (KOR/ENG) - \$79.99 \$39.99 EA

JINGA
 — 오늘 만든 생 떡국떡 —
FRESH SLICED RICE CAKES
 Freshly Made Today. Try it Now!
 10 times chewier, 100% natural ingredients, produced daily
 10배 이상 쫄깃한 식감, 100% 천연재료, 매일 생산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b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ks@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박지준 617.780.7839 jun@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unjungkim@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마사 김 213.503.0397 masa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kim@gmail.com	 선광호 617.815.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781.899.3412 eejeon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진영 김 617.515.1162 jin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617.645.6728 eejeonkim@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01.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8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7@gmail.com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지명...韓, 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윤재옥 만나 비대위원장직 제안 수락...김기현 사퇴 8일만

(김포=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기자 =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내정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담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 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

다"고 말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與 '한동훈 비대위' 논쟁 계속... '당정관계 변화 해법' 시각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명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정국을 이끌 '한동훈 임시 지도부'의 적절성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당내에선 현재 여권이 겪는 위기의 원인이 수직적 당정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 한 장관이 이를 풀어낼 책임자이냐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주류 사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 장관을 추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여전히 후보군에 거명된다.

◇ 주류 '한동훈 적임자' 주장...비주류는 반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을 총선 국면에서 비상 사령탑으로 내세우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높은 인지도,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의 인기, 대야 전투력을 두루 갖춘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직언'을 할 수 있는

한 장관이 구원투수로 적임자라는 게 주류 측 주장이다.

특히 비주류 측에서 '한동훈 불가론'의 이유로 드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주류는 주장한다. 당정 관계가 만약 수직적이라면 대통령과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측근이 당을 이끌어야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심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소통해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야 건강한 당정관계가 된다"며 "여론에 대한 동물적 감각이 있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변화를 끌어낼 신뢰가 있는 인물은 한 장관 아니냐"고 말했다.

주류 측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파격'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 국회의원 기득권을 타파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반면 비주류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

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 경험이 없고 '검사당' 이미지를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당이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정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이런 민심의 소리까지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지, 윤 대통령 아버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본들 그 선거가 되겠냐"라고 적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기회에 보수 울타리를 넘어서서 중도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김한길 비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 한 장관에게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거고, 아직도 위기의식 없는 당정이라면 정권 2인자로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한동훈은 '팀 원균' 이 낸 비대위원장...이순신은 무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비대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해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며 " '팀 원균' 에서 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순신의 12적을 가져가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대위원장은 권위를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은 권위가 약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 를 임진왜란 때 배 12척을 끌고 승리한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 (원균이 지휘해) 수군 과병선을 한번에 잃은 칠천량해전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그럼 강서선거를 지휘한 사람들은 원균"이라며 " '팀 원균' 에서 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순신의 12적을 가져가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이 대통령실에 '김건

희 특검법' 수용을 요청할 가능성을 묻자 "그럼 김기현 (전) 대표한테 시키지 왜 한 장관을 불러서 시키느냐"며 "한 장관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총선의 대반전이 나오지 않는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장관을 세운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며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는 대통령에게 말을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상당한 제약 사항을 들고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몸에 칼대는 거 빼고는 다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암울한 시대 배경에 크리처물의 장르적 재미... '경성크리처'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1945년 3월 말 경성. 동경대공습이후로 일본은 패전의 그늘이 짙어졌고, 조선은 아침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을 견뎌내고 있다.

드디어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조용히 동요하는 조선에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일본 없는 조선은 본 적이 없었다며 제 살길 찾느라 급급한 이들도 있다.

경성 최고의 자산가이자 전당포 금융당의 대주인 장태상(박서준 분)은 후자에 속한다.

태어나보니 식민지였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었다는 장태상은 생존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애국이니 정의니 하는 것보다 오로지 돈을 우선시하며 사업을 일궈고, 그 덕에 자수성가했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든 말든 간에 장태상은 난세 속에서 그저 무탈하게, 끈질기게 살아낼 생각만 할 뿐이다.

오는 22일 파트1을 공개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경성크리처'는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들은 시대적 아픔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실제 그 시대를 살았을 법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살아남는 것에 진심"인 장태상, 어머니를 찾겠다는 목표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윤채옥(한소희), 친일하는 아버지 몰래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 권준택(위하준) 등 시대를 살아가는 개성 뚜렷한 인물들이 이야기를 끌여간다.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남만다터 김사부' 시리즈 등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작품을 써온 강은경 작가는 크리처 장르라는 새로운 도전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잘 구현했다.

드라마 매 회차 부제목에는 '경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작가는 선과 악, 고통과 환멸, 집념과 집착 등 여러 경계에 놓인 이들을 등장시키며 '어떻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경성크리처'는 제목에서부터 대놓고 크리처물을 표방하지만, 괴물을 등장시켜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기까지의 전개를 서두르지 않는다. 극 초반을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풀어내는 데 할애한 탓에 초반에는 이야기가 늘어진다 느껴질 수도 있다.

자신은 무서울 것도, 거칠 것도 없다며 평평거리던 장태상은 실종된 애첩 명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이시카와 경무관의 협박에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뼈아프게 체감한다.

모든 정보통을 동원했지만, 아

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중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전문 토두꾼(실종자들을 찾는 사람) 윤채옥 부녀를 만나고, 각자의 사정으로 손을 잡게 된 이들은 모든 의심이 향하는 웅성병원에 잠입한다.

음습한 분위기의 웅성병원을 배경으로 드라마는 광활한 공간에서 휘몰아치는 공포감 대신 밀폐된 공간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긴장감을 택했다.

주인공들이 총알도 거뜰히 뿜겨내는 괴물, 그리고 괴물보다 더 괴물 같은 일본군들을 상대로 극렬한 사투를 벌이면서부터 그동안 쌓아온 서사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목에 칼과 총을 겨누던 두 남녀가 고난 속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열어가던 과정은 뻔할지 언정 익숙한 재미를 자아낸다.

각자의 목표에 매몰됐던 이들이 서로를 통해 점차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며 남을 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드라마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를 무겁게만 그려내지는 않는다.

연출을 맡은 정동윤 감독은 피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강약 조절을 통해 장르극 마니아가 아닌 일반 시청자도 장르극과 드라마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고, 박서준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적재적소에서 웃음을 자아내며 극의 호흡을 조절해낸다.

무엇보다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이 관전 포인트다.

쥐의 머릿속에 들어간 기생충이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설정에서부터 출발해 만들어졌다는 '경성크리처' 속 괴물

은 시각특수효과(VFX)를 통해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쉰다.


몸체를 키워가며 진화하면서도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아직 잃지 않은 괴물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기대를 모은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22일 파트1을 통해 7부작을 먼저 공개한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8) 주식투자자와 이자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대부분은 미래에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다. 이것이 투자자의 기본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는 미래가 아닌 현실점에 의해서 투자한다. 한 예로 지난 한달전 (11/1/2023)에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투자자는 단 24%였고 투자자 50% 이상이 비관적이었다. 그런데 현재(12/6/2023)는 무려 투자자 50%가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했다는 월스트리트 기사(When Bond Yields Dropped, the Everything Rally Kicked Off, Charley Grant, WSJ, Dec. 11, 2023)이다.
연준(Federal Reserve Board)이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다. 연속적인 금리 상승은 개인 가정이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끼친다. 경제가 불황기로 이어진다고 해도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연준의 확고한 의지였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가 2023년에 미국 경

제가 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6월에 발행했던 저자의 재정칼럼(주식시장 폭락과 회복, 6/27/2022)을 인용해 본다.
(주식시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연일 폭락하고 있다. 나스닥은 34%, 다우 존스는 24%, 그리고 코인은 무려 70%까지 폭락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분명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경제가 침체기(Recession)로 이어진다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세계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것이 40년 만에 겪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연준의 노력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경제 침체기로 이어진다고 해도 가볍게 지날 것으로 필자는 감히 예측해 본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주식시장(S&P 500 지수)은 11월 한 달에 무려 8.9% 상승했고 올해 12월 15까지는 22.91% 상승했다.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을 두려워할 때는 투자하고 거꾸로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주식시장을 두려워하라’ 고 조언했다. 투자자는 이 말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한다. 즉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두려움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이 상승하면 투자한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에 투자한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채권 수익률 급증에 불안해하면서 올해 8, 9, 10, 3개월 연속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11월에 지수는 방향을 바꾸어 8.9% 반등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카슨 그룹이 발표한 주식시장의 역사를 참고해 보자.
•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이 어느 한 달에

8% 이상 상승한 후에 이어지는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적이 90%이다.
•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이 어느 한 달에 8% 이상 증가한 후 이어지는 12개월 동안에 평균 15.8%의 수익을 올렸다.
미래 특히 주식시장이 과거처럼 반복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그림을 알려준다. 지난 10년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 12.5% 그리고 지난 30년 미국의 주식시장은 무려 1,680%로 상승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06%이다. 개인 투자자가 매주 \$150씩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1.3 million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어느 한 시점의 주식시장 하락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며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진흥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면서 전주殿主로 발탁된 미실의 지위는 왕후와 같았다. 이에 미실은 남편 세종에게 사람을 보내 밖(왕경 밖의 지역)에서 공을 세우도록 설득했다. 그러자 세종은 그를 따르는 많은 낭도들을 데리고 변방으로 출정하였다. 세종이 변방을 지키러 떠나게 되자 왕경에 남은 화랑은 부제 설원랑이 지휘하게 되었다. 권력을 손에 쥔 미실은 점점 방탕하여 설원랑과 상통하였고, 심지어 동생인 미생과도 상간을 하였다. 다행히 왕은 알지 못했지만 미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실은 설원랑과 미생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사통하기에 만일 낭도들의 우려 봄을 잃는다면 곧 세상의 여론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자신을 왜 원화로 받들지 않느냐고 질책하였다. 그러자 화랑의 부제 설원랑은 대화랑, 전방화랑 등 간부 낭도들을 데리고 진흥왕을 배알하여, 옛 고사에 비추어 보면 왕의 총첩이 원화가 되어 낭도들을 거느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원하였다. 이에 왕은 세종을 불러 풍월주에서 물러나게 하고 미실을 원화로 삼아 낭도들을 이끌게 하였다. 원화의 제도가 540년 ‘준정의 남도 살인사건’ 으로 폐지된지 29년 째가 되는 해인 568년에 다시 미실을 원화로 세워 부활하게 되었다. 이어서 설원랑과 미생을 봉사랑奉事郎으로 삼고 금진을 화모花母로 삼았다. 즉

설원랑과 미생을 좌우에 두고 원화인 미실을 받들게 하였고, 통례로 풍월주의 부인이 화모에 오르지만 여자인 미실이 원화가 되었으니 설원랑의 어머니인 금진을 화모로 삼았다. 세종은 변방으로 떠나기 전에 왕경에 남은 낭도들을 모아 놓고, “새로운 원화는 곧 나의 옛 부인이다. 불평하지 말고 잘 섬기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많은 낭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두머리 세종과 작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세종의 변방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세종이 변방으로 떠나자, 진흥왕은 곧 화랑의 부제 설원랑에게 명하여 모든 낭도들을 통솔하여 조알하게 하였다. 왕과 미실은 곤룡포에 면류관을 갖추어 입고 나와, 남도南桃에서 조알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어 낭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흥왕은 미실이 원화가 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호를 대창대창(463)으로 고쳤다. 흥에 취한 진흥왕은 월성의 미녀들로 구성된 많은 유희遊花들을 낭도들과 짝을 지어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다. 그들의 축제를 밝히는 등불이 사방을 밝혔고, 그들의 환성은 사해四海의 물을 끓여오르게 하였다. 왕과 원화(미실)는 남도의 정궁 난간에 서서 구경하면서 기쁨을 만끽하였다. 그들 앞으로 낭도들이 각자 한 명의 유희와 짝을 지어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지나갈 때는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에 진흥왕은 미실과 함께 그들에게 ‘비단돈(채전彩錢)’을 던져주며 말하기를 “저들도 각기 자웅(雌雄)이고 나와 너도 또한

자웅이다” 했다. 이날 밤 왕과 원화는 남도의 정궁正宮에서 합환을 했고, 낭도들도 유희들과 새벽까지 노래하며 춤추고 야합도록 했다.
한편 미실은 진흥왕의 명으로 입궁하기 전에 이미 동륜태자와 사통을 했고, 입궁 당시 임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달이 차서 낳은 딸(애송공주, 진흥왕은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다)은 아버지가 동륜태자이다. 동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실을 계속 요구했다. 미실은 후일 왕이 될 태자를 거부하지 못하고 몰래 상통했다. 태자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고, 은밀함도 잃어가고 있었다. 이에 미실은 탄로가 날까 심히 염려하여 동생 미생을 불러 의논하였다. 즉 동륜태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가서 유희들 중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여 색공으로 천거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미생은 동륜태자와 금륜왕자 등과 함께 매일 밤 밖에서 황음한 짓을 일삼았다. 동륜의 어색漁色은 유희들뿐만 아니라 미실이 진흥왕의 총애를 독차지 한 후 독수공방하고 있던 후궁 보명에게 까지 이어졌다.
결국 무분별한 동륜의 어색은 그의 죽음을 재촉하였다. 572년 3월 어느날 밤, 동륜은 보명궁을 월담하다가 큰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러자 왕은 태자의 종인從人들을 가려보니 모두 미실의 낭도들이었다(즉 미실이 사적으로 부리는 동생 미생의 무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미실의 방탕함도 알게 되었다. 결국 태자의 ‘개 죽음 사건’으로 인하여 미실은 원화와 전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왕은 세종을 다시 불러 풍월주에 봉했지만, 미실은 세종에게 물러날 것을 권하였다. 세종은 풍월주를 부제 설원랑에게 물려주고, 출궁을 당한 미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해궁海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463) 대창대창은 진흥왕의 세 번째 연호이다. 568년에서 571년까지 4년간 사용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연호를 고친 연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랑세기에는 미실을 원화로 세우며 원화제도를 29년 만에 부활한 기념으로 개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진흥왕은 즉위년에는 조부이자 숙부인 법흥왕이 사용했던 건원建元을 550년 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551년에서 567년까지는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568년에는 총애하는 후궁 미실의 원화 취임을 축하하며 연호를 대창으로 고쳤다. 572년 부터는 흥제鴻濟로 고쳤는데, 진지왕도 이를 사용하였고, 진평왕도 584년 까지 사용하였다. 다음은 건복建福을 진평왕, 선덕여왕 연간에(584~633) 사용하였고, 선덕여왕은 634년 인평仁平으로 고쳐서 647년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647년에 즉위한 진덕여왕은 연호를 태화太和로 사용하다가 650년부터는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DEC. 21st - DEC. 28th, 2023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FROZEN CHILEAN
KING CRAB LEG**

킹크랩다리

\$19.99
LB



**UNPEELED (5.29 OZ X 4 EA) +
PEELED (3.52 OZ X 2 EA)/BOX**



**ORGANIC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밤
군밤 & 깎밤**

~~Reg. \$12.99~~

\$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소년시대' 임시완 "제 속에 타고난 지질함 담았죠"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병태랑 저랑 맞닿아 있는 게 많아요. 떠오른 생각을 뱉어본 대사에 감독님이 감탄하기도 했죠. 제 속에 타고난 지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시대'에서 배우 임시완이 연기한 온양 '찌질이' 장병태는 눈물과 콧물이 일상이었다. 안 맞고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발디딘 부여 농고에서 싸움짱 '아산 백호'로 오해받기 전까지는.

극 중에서 장병태는 얼떨결에 부여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되며 평화로운 한때를 누리지만, 진짜 아산 백호가 나타나면서 다시 나라코로 향한다.

1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시완은 "병태는 저보다 모자라 보이는 아이라 다른 역할보다 연기하기가 쉬웠다"며 "숨통이 트이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장병태는 백호에게 상납하기 위해 돈을 모으면서 산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벌겠다고 벌일할 땐 맥없이 비틀거린다. 반

격할 배짱도 없으면서 굳이 말을 덧붙여 매를 받기도 한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갈 텐데. 저 말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착안해 살을 좀 덧붙여요"

이러한 병태의 특징을 부각하는 데에는 신경을 살살 굽는 듯한 충청도 사투리도 한몫했다.

임시완은 "충청도 사투리의 가장 큰 힘은 은유"라며 "'그래가지고 문이 부러지겠슈?'라는 말이 '문 좀 살살 닫아라'보다 훨씬 각인이 잘 된다"고 설명했다.

"구황작물이여? 뭘 자꾸 물어 물어 싸?",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서울대 가서 대통령을 하시지" 등 귀에 쿡 박히는 대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낌없이 망가진 임시완의 코미디 연기는 감독 이명우가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걱정할 정도지만, 그는 오히려 주변의 이러한 반응을 반겼다.

"촬영 중반에 다른 보조 출연자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웃긴 캐릭터가 만들어졌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죠. 원

초적이고 직접적인 드라마 리뷰라고 생각해요."

극 후반으로 갈수록 병태는 온양 '찌질이' 시절보다 더 지옥같은 상황을 맛보게 된다. 아산 백호라는 가짜 명성도, 부여 소피 마르소 선화(강혜원)도 잃은 병태의 추락은 임시완이 연기하기 가장 힘들었던 장면들이다.

그는 "나라코로 갔을 때 친구 호석이(이상진)를 의자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대본으로 볼 때도 굉장히 썩다"며 "좀 더 부드럽게 가도 괜찮지 않았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언어맞는 장면이 주를 이루다 보니 폭력이 미화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신경 썼다. 임시완은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며 "너무 사실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제안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는 "살아가면서 그냥 얘기할 때와 재치 있게 얘기하는 것, 그 힘 자체가 다르다는 걸 배웠다"며 "코미디를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제대로 코미디를 다



루는 감독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10부작인 '소년시대'는 매주 2회

차씩 공개되고 있다. 이달 22일이면 마지막 두 회까지 모두 베일을 벗는다.

12월 24일 - 12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좋은 인연을 얻는다

- 운수: 공공 얼었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온기가 돌고 따뜻해진다. 주위 사람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매력력을 느끼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급진전하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소피 | 크고 넓게 생각해야

- 운수: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보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범띠 |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 운수: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토끼띠 | 심사숙고해서

- 운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받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금전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용띠 |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 운수: 소신껏 뜻을 펼치게 되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29일 길일. 26, 30일 주의.

뱀띠 |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 운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지지 마세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금전: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 애정: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29일 길일. 28, 30일 주의.

말띠 |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 운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무리하지 마세요. 금전 융통이 되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망설임이 있다면 적당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양띠 |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 운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신경이 날카워지고 그로 인한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5, 28일 길일. 24, 30일 주의.

원숭이띠 | 눈앞에 흥런 볼이

- 운수: 눈앞에 흥런 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지금 사정에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숨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 애정: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6일 주의.

닭띠 | 귀담아 들어주어야

- 운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 금전: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애정: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8일 길일. 26, 30일 주의.

개띠 | 열과 성을 다하도록

- 운수: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 애정: 아무것도 아닌 일도 평자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돼지띠 | 최선을 다해

- 운수: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는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 금전: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운수 오진 날' 감독 "한정된 공간 속 스릴러 매력에 끌렸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와 서스펜스를 10부작으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운수 오진 날'을 연출한 필감성 감독은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마지막 회까지 모두 공개된 '운수 오진 날'은 낙천적이고 마음 약한 택시 운전기사 오택(이성민 분)이 우연히 장거리 손님으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태우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동명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시청자의 긴장감이 풀어질 때쯤 다시 조여들기를 반복한다. 3주 연속으로 티빙 유료 가입 기여도 1위를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

황정민 주연의 영화 '인질'을 연출했던 필 감독은 이 작품으로 첫 시리즈물 연출을 맡았다. 필 감독은 연달아 두 편의 스릴러를 연출한 이유를 묻자 "개인적인 호감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필 감독은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익히 아는 택시라는 공간에서 금혁수와 오택 두 인물의 감정 대결을 10부 동안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궁금했다"며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공간의 택시에서 인물들이 러닝타임 대부분을 보내는 만큼 달리는 자동차를 연출하기 위한 거의 모든 장치가 동원됐다고 한다. 가상 스튜디오, 실제 도로 주행, 랙카를 이용한 촬영 등이 다 사용됐고, 그 결과 이질감 없는 장면이 완성됐다.

필 감독이 꼽은 '운수 오진 날'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다.

'믿고 보는 배우' 이성민은 소심한 성격이었다가 복수심에 불타게 되는 택시



기사 오택을 연기했고, 로맨스 주인공 역할로 익숙한 유연석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이병민을 연기했다. '기생충'의 가사도우미를 연기했던 이정은은 이들의 죽음을 과해치는 황순규로 출연했다.

필 감독은 "러브콜을 보낸 모든 배우가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셨다"며 "그 어떤 스펙터클(화려하고 웅장한 장면)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배우들의 감정과 연기"라고 강조했다

다. 특히 필 감독은 오택이 살인마 이병민에게 협박당해 밀항할 배를 구하려 건달들을 찾아가 허세를 부리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다. 오택은 건달들을 위협하려고 자신이 본 이병민의 살인을 마치 자기가 벌인 일처럼 늘어놓는다.

작품의 결말에 대해 필 감독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선량한 마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담고 싶었다"며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시원한 결말이 있으니까 건다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뉴진스, 미국 ABC 새해맞이 특집쇼 출연...K팝 걸그룹 최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ABC TV 새해맞이 특집쇼 '딕 클라크스 뉴 이어서 로킨 이브 위드 라이언 시크레스트 2024'(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 with Ryan Seacrest 2024)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4일 밝혔다.

'뉴 이어서 로킨 이브'는 미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특집 방송으로, 12월 31일 저녁에 시작해 새해 첫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해 최고의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도 전파를 탄다.

K팝 걸그룹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뉴진스가 최초다. 한국 가수로는 지금까지 싸이,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출연한 바 있다. 뉴진스는 히트곡 '슈퍼 샤이'(Super Shy)와 'ETA'를 들려줄 예정이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평범한 것들의 가치

늘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과 가까이 있는 것들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쉬이 지나치기 쉽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자연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일 지라도 쉬이 생각하기 쉽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늘 곁에 있기에 그저 함께 머무는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서로 무심함으로 대하며 그 무심함을 가족이기에 예의 갖추 필요 없는 편안한 관계라고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물론, 편안함이 있어 좋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무관심이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COVID로 인해 3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제약에 묶여 있었는지. 일상이 마비되어 온 가족이 가중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에 집안에서 있어야 하니 답답했을 것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집 안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을 위해 하루 세끼 반찬 걱정을 하며 지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때를 생각하

니 지금은 너무도 자유롭게 않은가. 그러나 여전히 번역성이 약한 노약자들은 조심을 해야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행객들이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요즘 비행기 티켓을 사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먼 곳으로의 여행도 좋을 테지만, 가까이 있는 자연들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디 또 있을까. 햇살 좋은 날 집 포치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름 모를 새소리들과 파드닥 거리며 뛰어다니는 다람쥐와 토끼들의 움직임이 삶의 한 풍경이 되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특별함이란 평범한 일상에서의 누리이란 생각을 한다. 요즘처럼 사람이 그림고 이야기가 그리운 날에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지인을 불러 바깥 포치에 깔궂한 테이블보를 깔고 간단한 음식과 와인을 하나 곁들인다면 그 어느 레스토랑

을 가지 않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마주한 음식도 음식이지만, 함께 나누는 서로의 이야기가 더욱더 맛을 돋우는 것이리라. 이처럼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특별함이란 평범함이 주는 선물인 것이다.

100세 시대에 60에 오르는 나이는 청년에 속한다며 친구는 말해온다. 그러나 예수에 느끼는 내 생각은 편안한 것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보채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생각을 거듭해보는 것이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이가 관계가 좋아졌다. 혹여,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다림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말이다.

삶에서 너무 특별한 것을 찾다가 보면 소소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기 쉽다. 가끔은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일상이 또 하나의 풍

경이 되어 주변의 그 어느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면 좋겠다. 그 상대가 누가 되었던, 오롯이 들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희망을 풀어 나눠주면 좋겠다. 언젠가 나도 그 누군가의 풍경으로 주인공이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무엇이든 베풀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오늘이면 좋겠다.

하루는 24시간, 그러나 이 스물네시간은 모두에게 다르다. 평범함이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난감하다. 언제나 내가 쓴 안경의 색깔과 내가 쥔 잣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정짓는 일이 비밀비재하지 않던가. 나의 평범함이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의 평범함이 내게 아주 특별함이 되기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그 평범함을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하기 쉬운 '기준치'와 '보편적'이라는 틀 속에 가두지 않기로 하자. 각자의 누리는 평범한 생각들 속에서 각자의 가치들을 꺼내 보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10년 만이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신문들이다. 일사일언이나 횡설수설 따위의 칼럼들이 있다. 더러 찾아 읽는데, 일사일언이건 일사이언—事二言이건 글들은 아서 읽을 만하다. 몇몇 칼럼들은 제목대로 정녕 횡설수설하는 글도 눈에 띄인다. 추측건대 제이야기가 아닌 남들 말이요, 남의 이야기로 채우기 때 문일 수도 있겠다. 길기는 왜 그리 긴지. 읽다가 지쳐서 다 읽지 못한

다. 고두현 시인이다. 초행이 제목이다. 시는 짧아서 좋다. 처음 아닌 길 어디 있던가당신 만나러 가던그날처럼. (고두현, 초행 전문) 시인의 다른 시詩이다. 그의 책 서문에 넣었다. '10년 만이다./오래 버렸더니/ 둥글어졌다.// 사

는 일/ 사랑하는 일/ 군말 버리니/ 흥가분하다.' 10년 만이라 했고, 그동안 둥글어 졌으며, 흥가분해 졌단다. 10여년 되는 듯 싶다. 보스톤코리아에 질문을 올린 햇수를 말한다. 한담객설인데 오백쪽지 언저리 쓰음 일제다. 이따금 질문을 찾아 볼적엔 알맹이가 없으니 실없고 싱겁기 짝이 없다. 시인의 말처럼 둥글어 지거나 흥가분해 지기

는 커녕, 얼굴만 화끈거리는 거다. 모두 객쩍고 한가한 글들이기 때 문이다. '일반론 보다는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를 내보이고 싶다.' 한국 전전 대통령이 연설담당 비서관에게 부탁한 말이라 했다. 그럴 적에 대통령 연설의 시작은 '본인' 일 수도 있겠다. 한담객설 역시 내 이야기와 내가 알고 있는것만 고집했다. 그러나 짧게 쓰려 애쓴건 사실인데, 내 이야기는 많지도 않고 길게 쓸 여 력도 없다. 다른 의문이 생기곤 한다. 왜 썼을까. 답을 찾지 못했는데 혹시

남기기 위해서 일까? 그것도 아니 지 싶고 그저 일기쓰듯 글썩인 건 아닌가. 차라리 공개 일기장이 된 건 아닐까 말이다. 따로 챙기는 일 기장도 없긴 하다. 기왕에 공개한 일기장이다만 자위自慰 할수는 있겠다. 누군가 쓰면, 누군가는 읽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보냐. 이 질문 역시 현대판 패관잡기 稗官雜記라 해야겠다. 변함없는 객쩍은 소리 란 말일 진저. 가나안 땅에 거한지 십년 후이 었더라 (창세기 16:3)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암 1위 '유방암'... 치밀유방이라면 더 꼼꼼히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국내 여성암 1위로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지만 4기에 발견한 경우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위험한 유방암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일반외과 정홍규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흔한 치밀유방은 유방촬영검사서 암을 놓칠 수 있으므로 유방 초음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은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몸의 표면이나 내장 기관의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가리킨다.

2022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유방암 발생 건수는 남성 117건, 여성 2만 4806건으로 여성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 29.8%, 60

대 19.7%의 순이었다.

유방암 발생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는 연령 및 출산과 수유의 미경험, 고지방식, 음주 등이 지목된다. 한쪽 유방에 암이 있는 사람은 반대편 유방에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갑상선암, 대장암, 난소암에 걸렸던 사람이나 비만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어머니나 자매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될 위험성이 약 8~12배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40세 이후 여성에서 발견되며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자녀가 없거나 적은 여성, 30세 이후에 첫 자녀를 본 여성,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의 유방암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 발생에 있어 음주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된다.

유방암의 증상은 대부분 없으며 암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암이 진행하면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는 피부 밑의 림프관이 암세포에 의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치밀유방이 많다. 치밀유방이란 유방을 구성하는 조직 중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이 적어 유방촬영 검사를 했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총 네 단계로 나뉘 볼 수 있으며 3단계 이상의 치밀 유방이라면 유방의 절반 이상이 하얗게 나온다.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암 검진이 유방촬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유방초음파를 병행 진단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유방에 유선조직의 밀도가 높아 유방촬영상 하얗게 나오지만, 흑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만으로는 유방에 흑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정홍규 과장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3분의 1은 유방촬영술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며 “유방초음파 검사 후 의심이 되면 병변을 일부 떼어내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은 조기 발견시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 라며 “크기가 작고 양호한 편의 양성종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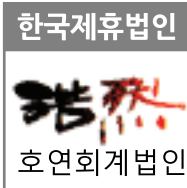
추정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자라거나 흑의 형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여성암 1위 ‘유방암’ ...치밀유방이라면 더 꼼꼼히”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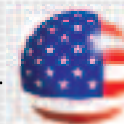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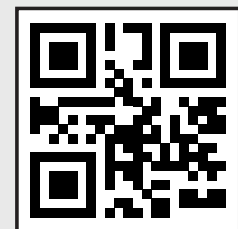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